

5월 27일(월) / 시편 119장

▶내용요약: 119편은 시편 중 가장 긴 본문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히브리 알파벳 9개가 짝을 이뤄 한 연을 구성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119편은 1-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25-112절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 가운데서라도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바랄 것이며 이어 말씀이 주는 지혜와 명철 등 혜택과 위대함을 찬양하며 말씀은 등과 빛이 되기에 전심으로 지킬 것과 113-176절에서는 말씀으로 구원 얻음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것과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다.

▶질문: “여호와여 내가 주의()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을 즐거워하나이다”(119편)

▶생각하기: 시편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찬양과 결단이 오늘 나에게도 있는가?

5월 30일(목) / 잠언 4~6장

▶내용요약: 4장은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지혜를 칭송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곧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며 지혜는 직접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5장은 지혜와 명철과 근신함을 가정생활과 연관하면서 음란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한다. 6장은 이웃에 대하여 보증서지 말 것과 개미를 견주어 게으르지 말 것과 악을 행하지 말 것을 권하는 기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실제적인 생활과 관련하여 열거하면서 아버와 어미의 훈계를 지키고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며 음란한 삶을 다시한번 언급하며 음란의 결과는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강조하며 경고한다.

▶질문: “지혜가 제일이니 ()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을 얻을지니라”(4장)

▶생각하기: 지혜를 말하는 기자는 음란한 삶을 경고하며 음란은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래한 무엇일까?

6월 2일(일) / 잠언 13~15장

▶내용요약: 13장은 훈계, 즉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말하는 기자는 지혜로운 아들은 말을 조심할 것, 부지런할 것, 정직하게 행동 할 것,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킬 것을 말하면서 이와 반대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징계를 근심하게 행하여야 함을 권면하고 있다. 14장은 정직한 자와 꾀역한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명철한 자와 거만한 자의 삶을 대비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5월 28일(화) / 시편 120~123장

▶내용요약: 120편은 거짓된 비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기도하며 자신은 이와 같이 살지 않기를 구한다. 121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분임을 찬양한다. 122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갖는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며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형통함과 성전이 주는 평안함을 노래하면서 상대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성전 삶의 자세를 말한다. 123편은 조소와 멸시를 받는 상황에서 종이 상전의 공훈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기자의 간절함을 호소한다.

▶질문: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을 지키시리다”(121편)

▶생각하기: 시편 기자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에서나 한결같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으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5월 31일(금) / 잠언 7~9장

▶내용요약: 7장은 기자는 아버의 말과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다시한번 음란과 연관하여 경고한다. 젊은이에게 다가가는 구체적인 음녀의 유혹을 실제적으로 열거하면서 필경 죽으로 가는 길임을 언급하며 훈계와 지혜의 말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7장의 음란한 여인의 행동과 대조하여 8장은 지혜를 품성화 하여 지혜가 부른다고 하는 기자는 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면서 진주보다 나은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를 얻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9장은 지혜를 여인에 비유하여 어리석은 여인과 달리 지혜로운 여인은 생명의 길로, 유익한 길로 초대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지혜를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는 기자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직결됨을 강조한다.

▶질문: “여호와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것이 명철이니라”(9장)

▶생각하기: 인가이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로운자들은 여호와께서 지켜 주시고 사망에서 보호하신다고 권면한다. 15장은 지혜로운 자는 말함에 있어 유순하고 선을 베푼다는 것과 지혜로운 자는 징계를 달게 받아 슬기를 얻으며 지식을 전파하며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하는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음을 말하면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므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권면한다.

5월 29일(수) / 잠언 1~3장

▶내용요약: 잠언은 전도서와 더불어 지혜서로 분류되는 책으로 1-9장, 10-22장, 22-24장, 25-31장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작품이 주를 이룬다. 시의 형태를 갖고 있는 1장은 잠언이 주는 유익함이 어떠한 것인지 말하면서 부모의 훈계를 따를 것을 권하는 기자는 악한 자의 유혹은 죽음을 가져오나 지혜를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있음을 말한다. 2장은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지식과 명철을 주며 음란에서 지켜주며,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라고 권면한다. 3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할 것을 권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이며 이 지혜를 지킬 때 얻는 복을 말한다.

▶질문: “()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1장)

▶생각하기: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잠언서는 거듭 강조하며 권하고 있다. 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떠한가?

6월 1일(토) / 잠언 10~12장

▶내용요약: 10장에서 기자는 지혜에 관한 솔로몬의 잠언의 시작인 이 부분은 악인과 의인을 대비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걷는 길이 의인이 길임을 말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형통하나 악인의 길은 징계가 있음을 말하면서 훈계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11장은 지혜있는 자는 정직함을, 완전함을 추구하며 환난에서 구원함을 얻으며 의를 굳게 지킴으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권한다. 12장은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 은총과 칭찬을 얻으며 생명을 돌보는 행위 뿐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진리를 말함으로 의를 드러내고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희락이 있으며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게 함을 악인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질문: “()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11장)

▶생각하기: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길과 얻는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질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의 훈계라 ()은 존귀의 길잡이니라”(15장)

▶생각하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결과들은 자신에게 뿐 아니라 이웃에게 더 나아가 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기자는 전하고 있다. 지혜로운 자에게서 비롯되는 말과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나의 말과 행동은 과연 나와 내 주변에 선한 결과들을 가져오는가?